

1부 무기가 되는 철학

■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

① 목차를 시간 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.

네 가지 개념 ‘사람’, ‘조직’, ‘사회’, ‘사고’를 축으로 구성한다.

- “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.” -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
- ‘조직’에 관한 핵심 개념은 집단에 속한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. 조직이 취하게 될 행동, 조직의 특질 등에 관해 과거 철학자들이 고찰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.
- ‘사회’에 관한 핵심 개념은 사회의 성립과정과 그 메카니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.
- ‘사고’에 관한 핵심 개념은 모든 일을 깊고 예리하게 고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.

② 현실의 끝모에 기초한다.

- 철학 사상의 중요정보보다 나 자신이 실감하는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하였다. 이 책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업인 조직과 인재에 관한 컨설팅과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하였다.

③ 철학 이외의 영역도 다룬다

- 핵심적인 철학 사상 이외에 경제학, 문화인류학, 심리학, 언어학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.

■ 왜 철학앞에서 좌절하는가?

모든 철학자의 생각은 두가지 축으로 정리된다.

• 물음의 종류 ‘What’ 과 ‘How’

-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 = What의 물음
-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? =How의 물음

• 배움의 종류 ‘프로세스’와 ‘아웃풋’

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배운다

-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
- 아웃풋으로부터의 배움

왜 철학 앞에서 좌절하는가?